

물오른 타격감 ‘찬물’... “병살타를 줄여라”

KIA, ‘병살타 17개’ 리그 공동 2위...LG의 2배

땅볼 비율 49.2%·1사1루 9개 집중...승부처 흐름 단절 상승세 속드러난 약점...득점 직결 클러치 능력 키워야



병살타가 공격에 찬물을 끼얹는다. 팬들의 탄식이 뒤따른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땅방이 힘을 빼는 건 이한 장면이다.

20일 KBO에 따르면 KIA는 팀 병살타 17개로 리그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병살타가 가장 적은 LG(8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단순한 아웃카운트 문제가 아니다. 공격의 맥이 끊긴다.

다만 흐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KIA는 최근 8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탔다. 이후 2연패로 숨을 고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타격 생산력은 살아 있는 상태다.

팀 타율(0.273)과 득점권 타율(0.290)이 리그 3위다. 불넷(87개)도 리그 공동 2위로 출루는 꾸준하다.

시즌 초 하위권에 머물렀던 순위도 현재 5위까지 끌어올렸다. 화끈한 타선이 팀 반등의 주원동력이다.

문제는 공격이 끊기는 지점이다.

KIA는 1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총 13개의 병살타를 기록했다. 이는 리그 최다다. 이 가운데 1사 1루에서 나온 병살타가 9개로, 해당 상황에서 리그 1위다. 나머지는 무사 1루에서 기록했다.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주자가 나간 뒤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타선별로는 1-2번 2개, 3-5번 4개, 6-9번 7개로, 하위 타순에서 병살타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땅볼 타구 비율도 리그 네 번째로 높은 49.2%다. 이 비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의 타구로 이닝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격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최근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17일 경기에서 5-2로 앞선 8회초 무사 1루에서 병살타로 추가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18일에는 2-2 동점을 만든 직후, 5회초 1사 1루에서 병살타가 나오며 공격이 멈췄다.

19일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3회와 5회 1사 1루에서 두 차례 병살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지난 1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7회 중견수 플라이 때 3루로 질주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다. 득점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중반 공격을 살리지 못했다. KIA는 1승 2패로 루징시리즈에 그쳤다.

주자는 꾸준히 나간다. 하지만 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출루 뒤 한 타석에서 이닝이 종료된

다. 팀배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KIA는 희생번트가 14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다. 작전 수행과 팀배팅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연결’이다. 좋은 공격도 한 타석에서 막히면 완성되지 않는다.

아직 시즌 초반이다. 그러나 병살은 줄여야 한다. 끊기지 않아야 상승세도 이어진다.

/주홍철 기자

정현·권순우, 나란히 광주오픈 16강 안착

정현(29·김포시청)과 권순우(28·국군체육부대)가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켈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본선 첫 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했다.

정현은 21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남자 단식 1라운드(32강전)에서 제이슨 정(36·대만)을 2-0(6-3, 6-4)으로 꺾고 16강에 안착했다.

세계랭킹 549위인 정현은 이날 세계 200위 제이슨 정을 맞아 안정적 수비와 파워 넘치는 양손 백핸드를 앞세워 1시간15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 특히 상대의 좌우 코트를 깊게 공략하는 스트로크와 끈질긴 랠리 운영으로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했다.

정현은 이번 승리로 국내에서 2주 연속 열린 올시즌 ATP 켈린저 대회에서 첫 승을 거둔 한국 선수가 됐다.

정현은 경기 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 대회에 참가하게 돼 기쁘다”며 “상대가 복식에 강점이 있는 선수였지만 잘 이겨내고 한 경기를 더 할 수 있게 돼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승리 요인으로는 체력과 경기 운영을 꼽았다. 정현은 “상대가 빠른 플레이를 가져가는 스타일이라 랠리를 길게 가져가며 체력을 공략했다”며 “전체적인 경기 감각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 전 설레는 마음과 걱정이 반반이었다. 광주에 일찍 와서 코트 적응을 잘한 것이



정현이 21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켈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본선 남자 단식 1라운드(32강전)에서 제이슨 정과 경기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현은 22일 클레망 치드(프랑스)와 본선 2라운드(16강)를 치른다. 그는 “저보다 랭킹이 높고 한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선수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권순우도 같은 날 열린 대회 본선 남자 단식 1라운드(32강전)에서 다니엘 마수르(31·독일)를 2-0(6-2, 7-6)으로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

권순우는 완벽한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앞세워 승리를 따냈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상대 서브 코스를 읽고 스트로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2세트 중반 이후 중요한 게임을 놓치며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멘탈을 다잡으며 타이브레이크 점전 끝에 승리를 냈다.

권순우는 경기 후 “부산 대회 이후 광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100%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이겨서 다행”이라며 “전체적으로 꾸역꾸역 버티며 경기를 풀어나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순우는 22일 이리야 시마킨과 8강 진출을 놓고 다룬다. /박희중 기자



전남 광주시체육회장이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가 열린 펜싱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빛고을 꿈나무 “올해는 더 높이 날자”

광주시체육회, 공정 경쟁 통해 소년체전 광주대표 662명 선발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광주 대표 선수단을 확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부터 관내 22개 경기장에서 축구, 양궁 등 소년체전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37개 종목 662명의 대표선수단을 최종 선발했다.

개인종목에서는 복싱 김준재(광주체육 3), 소프트테니스 문병하(신광중 3), 양궁 김준서(광주체육 3), 씨름 김하을(광주중 3) 등 지난해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메달 기대감을 키웠다.

단체종목에서는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소프트테니스 신광중이 광주 대표로 선발돼 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농구는 문화중, 핸드볼

조대여중, 하키 송광중, 소프트테니스 금호중은 지난 대회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 검도는 서석중, 럭비 무진중, 배구 치평중·문흥중, 야구 수창초·무등중도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전남 광주시체육회장은 “동계훈련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광주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지역 학생 선수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에는 산악, 스쿼시, 합기도, e스포츠(FC온라인) 4개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신설됐으며, 총 40개 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대회 규모와 경쟁 수준이 한층 확대됐다. /박희중 기자

‘젊은 피’ 투혼... ‘탈꼴찌’ 사활

광주FC, 오늘 포항 원정맞대결



시즌 초반 강등권으로 추락한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 원정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광주는 22일 오후 7시30분 포항과 ‘하나은행 K리그 2026’ 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9일 열린 울산HD와의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5로 패했다. 신창무의 동점골로 역전까지 노렸지만, 이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포항전의 핵심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다. 주중 경기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과 일부 베테랑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젊은 선수들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울산전에서 동점골을 이끈 안혁주를 비롯해 문민서, 김용혁은 꾸준한 출전으로 경험을 쌓고 있으며, 김윤호와 박성현 등 준프로 출신자 원들도 점차 팀 내 비중을 높이고 있다.

상대 포항은 최근 2연패와 함께 무득점에 그치며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호재, 조르지, 주닝요 등 위협적인 공격진과 기성용이 중심을 잡는 중원, 완델손이 버티는 수비 라인까지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 초반 주도권 싸움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가 초반부터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포항 원정에서의 좋은 기억을 이어가며 연패 탈출과 분위기 반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주세종이 지난 19일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프리킥을 차고 있다. <광주FC 제공>

영암초 최지원·여수한려초 임지율 ‘2관왕’

제98회 동아수영대회...문승유 ‘金’

전남 수영 꿈나무 최지원(영암초 6)과 임지율(여수한려초 6)이 제9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최지원은 지난 20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초부 배영 50m(32초44)와 100m(1분9초66)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지율은(6년)도 여초부 자유형 100m(1분1초43)와 200m(2분13초57)에서 2관왕에 올랐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최상의 경기력을 확인한 최지원과 임지율은 일찌감치 2관왕을 예약했다.

문승유(영암여중 1)는 여중부 평영 200m(2분36초44)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승유는 지난해까지 전국소년체전 여초부에서 3연패를 달성한 기대주로 소년체전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황채원(사창초 4년)은 여초부 자유형 100m(1분8초22)에서, 문강우(영암중 3)는 남중부 배영 50m(27초85)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문정우(여수문수중 3년)는 남중부 자유형 1,500m(16분 44초95)에서, 박민재(전남체육중 2년)는 남중부 자유형 50m(24초46)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수영을 빛냈다.

전남체육중 수구는 팀 창단 이후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첫 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권가은, 김연우, 오진혁, 조은호, 백대영, 유하진, 김민규, 김건우, 권다은으로 팀을 이룬 전남체육중은 완벽한 팀워크와 조직력으로 값진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남 수구의 미래를 밝게 했다. /박희중 기자